

불확실성 줄고, 교역량 늘고... 배터리·신재생 등 '호재'

바이든, 탄소세 도입 등 그린정책 석유화학·철강업계에는 '악재' 車업계, 연비규제 강화 대응 필요 美 배터리공장 LG화학 등 수혜

조 바이든 후보가 미국 대통령으로 확정되면서 국내 산업계도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점에서 안도하는 분위기지만, 일부 부담스러운 기조도 존재한다는 분석이다.

산업계 전반적으로는 바이든 후보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보다는 '상식적'이라는 데에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모습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예상치 못한 정책을 펼치며 불안을 가중했던 것과 달리, 바이든 후보는 분쟁이 일어나더라도 예상 가능한 선에서 움직일 것이라는 예상이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 전자업계는 좋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중국과의 무역 분쟁을 지속해 '반도체 굴기'를 억제하면서도 무역 제한 폭을 줄여 줄 여지는 남아있기 때문이다.

앞서 중국 시장에 크게 의존하던 미국 현지 기업들은 정부에 수출 제한을 풀어달라고 꾸준히 요구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바이든 후보가 정권을 이양받으면 이들 요구를 어느 정도 수용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대선 '바이든 승리' 국내 산업·경제 전망

- 무역 전반**
 - 우방국과의 관계 회복 및 다자간 체제복원을 통해 글로벌 무역심리 개선 가능성 확대 예상
- 통상 환경**
 - 한국산 수입규제 및 무역장벽 축소로 통상환경 나아질 여지가 있음. 미국 경기부양책에 따른 미국 경기회복 - 한국 대미 수출 증가 기대
- 교역 여건**
 - 향후 국내의 수출 여건 개선 예상. 세계 교역량에 탄력적이고 수출의존도 높은 한국경제 반사이기 기대
- 기업 규제**
 - 공화당의 상원 장악으로 기업들에 대한 중세 및 규제 개선 전망
- 기타**
 - 국내 산업은 환경 규제에 취약. 산업 전반의 기후 변화 대응 수준이 미흡한 국내 경제 관점에서 '환경'이라는 새로운 통상 압력 우려
- 국내 성장률**
 - 바이든의 경기 부양책 규모가 트럼프의 공화당보다 커 미국 경기 회복에 따른 미 경제 성장에 한국 경제성장률의 상승요인 작용 기대
- 환율**
 - 달러 약세에 따라 당분간 하락 전망. 위험자산 선호 심리 확대
- 국내 증시**
 - 미국 대선에 대한 단순 불확성 및 정책지원 혼선 제거. 국내 증시 연말 랠리에 대한 기대감
- 기대 업종**
 - 신재생에너지·전기차 등 그린뉴딜 및 우바마케어 유지 확대 등의 정책으로 헬스케어 업종 우호적인 환경 기대

연말뉴스

비보와 샤오미 등 중국 스마트폰 업체들도 최신 모델에 삼성전자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를 선택했다. 화웨이 경쟁력을 잃으면서 대안으로 한국 반도체를 주목하고 있다는 얘기도 있다.

미국 현지 진출도 활발해질 수 있다. 산업연구원 바이든 후보의 '미국인에 의한 미국 내 제조' 강령으로 현지에서 전자 부문 신기술 투자 확대가 일어날 수 있고, 이에 따라 국내 기업들도 참여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다만 바이든 후보가 법인세 최고 세율을 21%에서 28%로 높일 수 있다는

점은 부담이다. 일각에서는 부통령 커릴라 해리스가 현지 IT 기업들과 친분이 깊어 경쟁 관계인 국내 기업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내놓고 있다.

자동차 업계는 그야말로 '반반'이다. 바이든 후보가 친환경 정책을 주요 과제로 내세우긴 했지만, 법인세 인상에 더해 여전히 비중이 높은 내연기관차에 대한 제재와 규제 강화가 유력하기 때문이다.

공장 운영비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 바이든이 최저임금을 15달러로 인상하는 등 노동 정책을 시행할 방침인 가운데



LG화학은 미국 GM과 손잡고 현지 합작법인을 설립했다. 사진은 메리 바라 GM 회장(왼쪽)과 신학철 LG화학 부회장. /LG화학

데, 연비 규제 강화나 환경 관련 세금 신설 등도 예상되고 있다. 현대차와 기아차는 현지에서 신타페와 투싼 등 내연기관차를 생산하고 있다.

이같은 환경 친화 정책은 석유화학 및 철강 업계에는 특히 악재라는 평가다. 온실가스 배출 규제가 악한 국가에 탄소조절세 도입을 검토 중인 상황, 국내 업계에는 직격탄이다. 이들 업종에 한해 보호 무역을 더 강화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그나마 수출 단가 회복 기대는 호재다. 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원은 '바이든 후보 당선 시 우리 무역에의 영향' 자료를 통해 미국 경기 회복과 석유산업 규제로 국제 유가 인상 및 석유화학

석유제품 등 수출 단가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다.

친환경 에너지 업체들에는 큰 기회다. 무역협회는 바이든 후보가 2050년까지 탄소배출 제로를 목표로 대대적인 투자와 연구개발 지원을 제시했다며 미국 친환경 분야 수요 확대와 통상정책이 우리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 내에 배터리 공장을 확장하고 있는 2차전지 업체인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이 대표적인 수혜 업체다.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 정책도 강화하면서 한화솔루션과 같은 친환경 기업에도 기대감이 커진다.

/김재용 기자 juk@metroseoul.co.kr

“교역 개선”... 증시 들쭉, 연말 랠리 가능성

국내 수출환경 긍정적 효과 기대 韓-中-美 교역가치사슬 회복 전망

외인 이달 들어 2조1250억 순매수 올 28조 매도한 외인 컴백 시그널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미 대선에서 승리함에 따라 '연말 랠리' 등 국내 증시에도 긍정적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또 달러 약세·원화 강세 추세가 이어질 개연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렇게 되면 올해 국내 증시에서 28조 원 가까이 매도한 외국인들이 돌아올 것이라는 기대감도 커질 전망이다.

이 같은 전망은 미국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향후 수출 여건도 개선될 것이라는 예상 때문이다. 지난 10월 한 달간 코스피는 뉴욕증시와 함께 미국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바이든 후보 당선 가능성이 점쳐진 4일(현지시간) 뉴욕시장에서 3대 지수는 이를 불식시키듯 2~3% 이상 큰 폭으로 상승 마감했다.

◆“불확실성 해소...연말 랠리 가능성” 김형렬 교보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선거 이벤트가 종료되면서 정책지원 혼선이 제거될 수 있다는 기대를 주식시장이 보여줬다”고 말했다.

최석원 SK증권 리서치센터장도 “지금까지 불확실성이 컸던 게 문제였다”며 “우편투표에 대해 재검표하자고 하면서 불확실성이 남아 있지만, 당선 확정이 되면 이것이 없어지면서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 6일 코스피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2.71포인트(0.11%) 오른 2416.50에 거래를 마쳤다.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의 모습. /연합뉴스

특히, 수출국인 우리나라로서는 그동안 발목을 잡았던 교역 여건이 개선되면서 증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상재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바이든 시대가 현실화하면 한국경제는 이머징 가운데 가장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며 “한국 수출은 세계 교역량에 탄력적인데 한국-중국-미국으로 이어지는 교역 가치사슬이 회복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연말 랠리에 대한 기대감도 나온다.

정명지 삼성증권 투자정보팀장은 “바이든 후보당선이 국내 증시에는 훨씬 긍정적”이라며 “지난 4년간 코스피가 전세계에서 가장 소외된 증시 중 하나였다는 점에서 바이든 당선으로 연말 랠리 등 돌림이 나올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원화 강세 예상...외국인 컴백?

조 바이든 후보의 대선 승리로 당분간 원화 강세 현상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올해 국내 증시에서 28조 원 가까이

매도한 외국인 돌아올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실제로 외국인은 이달 들어 2조원 넘게 사들였다.

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외국인은 이달 들어 코스피·코스닥에서 2조1250억 원어치를 순매수했다.

외국인은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의 영향으로 지난 1월과 7월을 제외한 나머지 8개월간 계속 한국 주식을 팔아치워 연초 이후 현재까지 총 27조8145억 원어치를 순매도했다.

통상 달러 약세·원화 강세 환경에서는 환차익에 민감한 글로벌 패시브(시장의 흐름에 맡기는 펀드에 투자) 자금이 국내 증시에 유입할 가능성이 커진다.

실제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개표 초반 우세해 보였던 지난 4일에는 원·달러 환율이 3.6원 오르고 외국인은 코스피·코스닥 주식을 2074억원 순매도했다. 그러나 바이든 후보가 승기를 잡은 5~6일 이틀간 원·달러 환율은 17.3원 떨어져 약 1년 9개월 만의 최저치인 1120.4원으로 마감했다. 증시(코스피+코스닥)에서도 외국인이 지난 5일 1조93611억원, 6일 4599억원을 순매수했다.

유승민 삼성증권 글로벌 투자전략팀장은 “바이든 행정부는 재정확대·통화 완화 정책을 펼칠 것”이라며 “이에 따라 미국 경제만이 아니라 다른 주요국 경기기도 회복하면서 일방적인 달러 강세가 어려워지는 큰 흐름이 내년까지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고 관측했다.

/연합뉴스·송태화 기자 alvin@

‘오바마 케어’ 부활... 삼바·셀트리온 수혜

복제약 처방 장려 정책 예상 국내 바이오시밀러 ‘청신호’

미국 대선에서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가 승리를 확정 지으며 제약·바이오주에 기대감이 모였다. 바이든 당선인이 대선 공약 중 하나로 ‘오바마 케어’의 확대 적용을 내세우며 ‘바이든 케어’의 부활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복제약 처방 장려 정책 등이 예상되면서 국내 바이오시밀러 업체가 수혜를 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오바마케어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주도한 미국의 의료보험 시스템 개혁 방안으로, 전 국민의 건강보험 가입 의무화를 골자로 2014년 1월 시행됐다.

바이든 당선자는 오바마 대통령 재임 기간 8년간 부통령을 맡아 오바마 케어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 이번 대선에서 공약으로 현재 91.5% 수준인 미국인 보험 가입률을 97%까지 끌어 올리겠다고 했다. 또 기존 오바마케어 외에도 메디케어 가입기준 연령을 60세로 하향(기존 65세)하는 것을 공약했다. 적용 인구가 약 7000만명 확대될 전망이다.

오바마 케어가 바이든 케어로 부활할 경우 국내 제약·바이오기업에도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우선, 의약품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해 복제약 처방을 장려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국내 바이오시밀러 대표주자인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의 수혜가 예상된다. 바이오시밀러는 오리지널 의약품과 약효는 같지만 가격은 20~30% 저렴한 바이오의약품 복제약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미국 제약·바이

〈신용거래 금액 높은 상위 15개 국내 제약·바이오주〉 단위: 억원, %

순위	시장구분	종목명	잔고액	잔고율
1	코스피	셀트리온	4088	1.29
2	코스닥	씨젠	4055	7.87
3	코스닥	셀트리온 헬스케어	2732	2.16
4	코스피	신용제약	1899	3.54
5	코스피	녹십자	1173	3.98
6	코스피	제넥신	1015	3.63
7	코스피	부광약품	989	5.06
8	코스피	에이치엘비	988	2.23
9	코스피	삼성바이오로직스	947	0.23
10	코스피	삼천당제약	886	8.65
11	코스피	셀트리온 제약	873	2.39
12	코스피	일양약품	858	6.92
13	코스피	알테오젠	805	2.00
14	코스피	메드팩토	619	3.88
15	코스닥	바이넥스	586	8.33

결제일 5일 기준. /코스콤

오 기업들과 바이오의약품 위탁생산(CMO)을 확대하고 있으며,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는 현재 미국에서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레미케이드의 바이오시밀러 ‘렘플렉시스’와 유방암 치료제 허셉틴 바이오시밀러 ‘온트루잔트’를 판매 중이다. 전 세계 매출 1위 의약품 휴미라의 바이오시밀러 ‘SB5’ 역시 미국 출시를 앞두고 있다. 셀트리온 역시 현재 미국에서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레미케이드의 바이오시밀러 ‘렘시마’와 혈액암 치료제 탑테라의 바이오시밀러 트룩시마를 판매하고 있다. 바이든 케어가 시행되면 정밀의학과 원격 진료 등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역시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세경 기자 seilee@